

# 민주 지방선거 전략공천 하나 지역정가 술렁

### 정부 높은 지지율에 '전략공천은 곧 당선' 분위기

### 범위 확대 위해 당규 개정 나서... '여성특구' 주장도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 후보 전략공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전략공천을 기대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점에서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의 전략공천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 당헌·당규 상 광역단체장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경우 기존 방침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시장·군

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애 나섰다.

흔히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에 당의 입지를 넓히거나 상대적으로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위해 이뤄진다. 또 경쟁 당과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종종 전략공천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면서 ‘민주당 전략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민주당의 이 지역 전략공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략공천은 일부 탈락자의 반발 등 경선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 중앙당의 입김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움직여야 한

다는 점에서 ‘지역 여론을 무시한다’는 반발을 살 수도 있어 민주당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전략공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현재 전략공천에 대한 중앙당의 정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략공천이 이뤄지더라도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후 전략공천 지역구를 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략공천에 따른 파장이 큰 광역단체장보다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전략공천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춰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특정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여성 정치인을 전략공천하는 ‘여성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심심찮게 전략공천이 화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광주시장이나 구청장 중 여성이나 장애인을 배려한 공천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또 전남지역도 일부 시군에서 여성 정치인 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의 경우 중앙에서 지역 정치까지 관여하고, 지방자치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중앙당이 꺼릴 것”이라며 “지역민과 지역 정치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작도 전에...우려되는 '빈손 국회'

### 오늘부터 임시국회...올림픽·밀양 화재 놓고 여야 냉랭

2월 임시국회가 30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각 당의 중점법안 입법화를 위한 여야 간 기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현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태로 벌써부터 정쟁 끝에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다음 날인 31일과 내달 1~2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5~6일에 있을 예정이다.

분야별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5~7일로 잡혔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에 열린다.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제회의도 열린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

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후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30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곧바로 이들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있을 예정이다. 우원식(다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0시 정 의장 주재로 회동해 2월 임시국회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밀양 화재 참사와 평창올림픽 등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면서 형성된 냉랭한 대치 전선이 풀리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추미애 “野, 올림픽 성공 위해 정쟁 멈춰달라”

### 고위 당정청 회의

### 2월국회 협조 촉구

여당은 29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소모적 정쟁이 빈손 2월 임시국회를 만들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가와 국격,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지적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올림픽이 우리가 바로 추구하는 올림픽이다”며 “이런 기회를 야당이 남남갈등으로 정쟁거리로 소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도 “전 지구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올림픽 정신인 평화 정신을 국내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전략했다며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하하는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또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일언지하에 거부한 한국당의 출렁한 행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 세계가 평창의 성공을 기원하는 상황에서 제 1야당의 맹목적인 ‘단죽결기’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옹색한 모습”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밀양 화재 참사를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추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밀양을 정쟁 거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를 정쟁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정쟁은 ‘빈손 국회’로 이어질 뿐이라며 2월 국회에서의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월

임시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입법국회가 돼야 한다”며 “정쟁과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고 ‘할 일 하는’ 민생입법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洪 “지방선거 패하면 총선공천 없다”

### 한국당 의원 연찬회...“선거 끝나도 나는 건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자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지방선거 패배는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지방선거 패하면 다음 총선공천도 없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 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모 두 발언을 통해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방선거는 의원 여러분의 선거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에 패하면 여러분

들도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없다. 손발이 다 질러는 것”이라며 “다음 총선 공천도 없고, 또 공천을 받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우리’가 당권을 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靑 새 대변인에 기자출신 김의겸

### 한겨레 선임기자 역임...최순실 특종 보도 명성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에 김의겸(55)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내정했다.

전북 군산 출신의 김 대변인 내정자는 군산 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0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 사회부·정치부 기자를 거쳐 사회부장과 정치사회 담당 부국장을 역임하고 논설위원과 편집국 선임기자를 지낸 중견 언론인 출신이다. 특히 2016년 9월 K스포츠채



단의 배후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포문을 여는 특종 보도를 한 데 이어 사내 특별취재팀장을 맡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다수 특종과 단독보도를 이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1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3억

###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3월초 입주 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